



희미한 박명 뒤로한 채 빙판을 걷는 자, 광복의 '빛' 간직하다

영화 '하얼빈'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작품 초입과 말미에 등장해 이목을 끈 얼어붙은 두만강 산.



희미한 박명을 뒤로한 채 빙판을 걷는 자, '늑대 늑대(이등박문)'를 처단하려 두만강을 건너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의 모습이다. 만인의 '영웅'은 쓰러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며 위태로운 시대를 횡단해 간다.

영화 속 장면은 어두운 감각으로 수렴한다. 순사를 피하던 모던보이의 분투도, 폐도라를 둘러싼 채 연초를 태우던 순간도 모두.

그러나 거사를 도모하던 의인들의 안광만은 빛나던 '하얼빈'은 그런 영화다. 우민호 감독이 일제강점기를 초점화한 이 작품은 시대 배경을 반영해 캄캄한 미장센으로 구현했지만, 이번엔 광복의 '빛'이 드리워져 있다.

9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하얼빈'은 개봉 16일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누적 관객 수 382만 명을 웃돌고 있다.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있다는 점 외에도 하수상한 시기와 맞물려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거사 10일 전부터 당일까지 역순행하는

전개를 차용했다. 과거 회상은 흑백 컷으로 처리해 시간 흐름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안중근(현빈 분)과 대한 의군은 하얼빈역에 잠입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그 과정에서 우덕순(박정민), 김상현(조우진), 공 부인(전여빈), 이창섭(이동욱) 등은 영웅이 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영화 제목이 '안중근'이 아니라 '하얼빈'인 것은 모두가 주역이라는 점 때문이다.

극적 긴장의 순간은 일본군 장교 모리 다쓰오(박훈)와의 조우였다. 안중근의 거사를 막기 위해 밀정과 연계된 그는 상영 내내 관람객에게 서스펜스를 제공한다.

이등박문 역을 맡은 일본의 연기파 배우 릴리 프랭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극중에서 "(조선인들은)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말

지라며 의문을 품는다. 단순히 원수의 독백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하얼빈'이 슬리한 역사를 증언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물들이 스크린을 장식했지만 '씬스틸러'는 단연 조우진이었다.

갈지자 선로를 쭉 들어가며 기차가 칸칸이 굽이치는 대목부터의 연기는 압권이었다. 구한말 독립운동을 모티브 삼은 '영웅'이나 '밀정'과 대별되는 긴장감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을 가공한 팩션(Faction)이라 하더라도 과거 거사를 투시한 작품은 큰 틀에서 변모하기 어렵다. 작품의 차별화를 위한 감독의 고민은 특별 출연한 박정철(정우성)이 사막에서 폭약을 내어주던 장면, 나아가 설원과 빙상 촬영 씬 등 수려한 영상미에서 빛이 났다. CG를 최소화는 대신 실제 공간에서 촬영한 덕분에 자연 풍광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거사 일대기
현 빈·박정민·이동욱 등 라인업
개봉 16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광복 80주년 앞두고 의미 되새겨

영화는 초인적인 영웅이 아닌 이름없는 민초들의 활동을 부각시킨다. 한 사람의 영웅보다 다수의 '영웅들'에 초점을 맞춘다.

안중근이 일본 장교 다쓰오를 놓아준 사건은 얼마 후 동료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안중근은 두려움에 떨다 바닥에 주저앉는데, 관객에게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쳐진다. 심지어 동지에게 힐난을 당하거나 작전에서 밀려나기까지 한다. 그러나 말미에 밀정이 개심해 의군으로 합류한 것은 결과적으로 안중근의 결기로 인해서다.

이등박문 가슴에 총탄을 쏜 뒤 '까래야 우라(대한독립 만세)'라는 안중근의 외침이 하얼빈 역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소처럼 잡혀 나가는 그의 모습은 먹먹함과 비장함을 준다.

이틀날 '대동공보' 발행인 이강(안세호)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암살 대신 '척결'이라는 표현을 쓴다. 실제 '대동공보'는 1908년 러시아 교포단체인 한국국민회(韓僑國民會) 기관지로 창간됐다.

작품은 안중근은 물론 폭약을 내어주길 고만하던 박정철, 변절자를 처단하려다 주저한 동료들, 배신했다 팀에 합류한 밀정까지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 결국 인간의 입체적인 면 또한 역사를 진전시키는 단초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영화가 갖는 의미는 깊다.

한편 초입과 끝, 광공 연 두만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구성의 묘도 돋보였다. 인간 안중근의 번뇌, 비탄을 이미지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구현한 영상미학도 인상적이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미얀마 반군이 점령한 미얀마군 서부사령부. /연합뉴스

'미얀마와 광주' 동시대 아픔 영화에 담다

광주독립영화관·해위주민운동대 11일 '절멸을 모르는 우리가...' 상영

광주와 미얀마는 군부 독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희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80년 5월 광주처럼 미얀마는 쿠데타(1962)를 겪으며 오랜 세월 군정 지배를 받았다.

미얀마와 광주의 동시대적 아픔을 '영화'로 살펴보고 연대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독립영화관)과 해위주민운동대(KOCO)가 오는 11일(오후 7시) 독립영화관에서 펼쳐지는 미얀마 필름투어 '절멸을 모르는 우리가 말하건대'가 바로 그것.

혁명 현장에 나선 여성들과 생명 존엄성을 다룬 작품 중에서도 미얀마-태국 감독이 제작한 단편/다큐가 스크린에 걸릴 예정이다.

먼저 Chaweng Chaiyawan 감독의 'Pomi

Pothoe'은 젊은 카렌 부족 남성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숲으로 나가는 내용을 그렸다. 그들 눈에 비치는 '익숙한 숲'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을 포착한다.

지난해 선보인 도리스작 'Women at war'도 관객들을 만난다.

미얀마 카야(카레니)주에서 전개됐던 군사 쿠데타 이후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는 실향민 캠프에서 살아가는 세 명 여성의 모습을 비추며 난민의 삶과 비극, 평화를 꿈꾸는 이들을 그린다.

이외 익명 작가의 'Journey of a bird'를 선보이며 상영 후 생각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광주와 미얀마의 아픔을 겹쳐 보게 하는 이번 기획은 영화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환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무료 관람, 별도 예매 없이 참여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색면과 리듬의 선...인간 심리 구현

컬리너리 'rhythm' 전, 2월 4일까지 전남대박물관

컬리너리 작가의 작품 속 인간의 모습은 얼핏 형이상학적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인간의 신체를 투박하면서도 간략하게 형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에 놓인 인간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전남대 박물관(관장 정금희)에서 오는 2월 4일까지 펼쳐지는 컬리너리 작가 초대전은 인간의 신체와 내면을 초점화한다. 'rhythm'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단순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선들이 환기하는 역동성을 주목한다. 출품작은 모두 10 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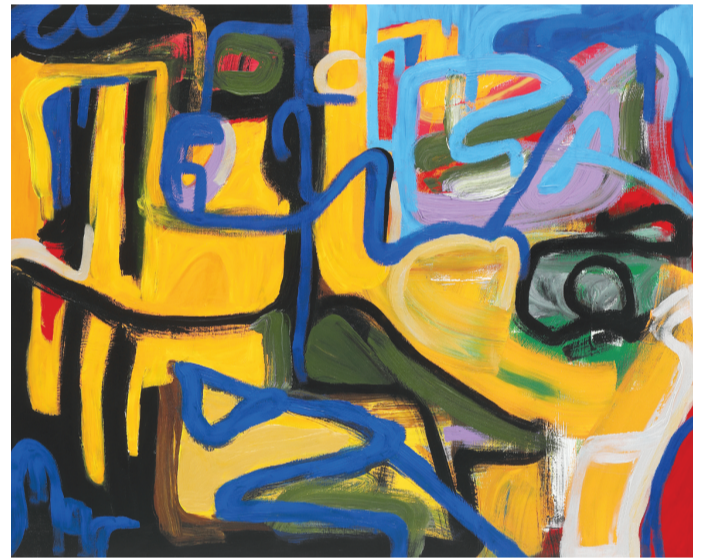
작품 속 인간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남성과 여성을 혼합한 것 같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상상속에서 구현한 느낌도 든다.

또한 순색과 보색 대비의 강렬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발현한다. 색면과 리듬의 선들이 이면에 자리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 지닌 복잡성과 중층성이다. 작가는 보편적인 인간 심리적 특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에 임하는 작가 자신의 내면의 일면을 투영하는 듯하다.

특히 벽면을 가득 채운 9m 길이의 대형작품은 크기와 분위기 면에서 전시실을 압도한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는 작가의 드로잉 라이브 페인팅이 예정돼 있다.

한편 정금희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컬리너리



'rhythm' 작가가 풀어내는 다채로운 리드미컬한 형상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은 각자의 삶과 내면에 드러워진 '리듬'을 바라보고 사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술·문화·예술언어' 연구 결과물 공유회

광주시립미술관, 오늘 '삽질과 디깅'

일상에서 현실성 없지만 욕망을 갖고 한 분야에 전착하는 것을 '디깅'(digging)이라 한다. '삽질', '파고든다' 두 의미를 포괄한다.

학문이나 연구 분야에서도 디깅은 일반화가 돼 가고 있다. 현실성 없지만 욕심 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 문화, 예술언어 등을 모티브로 지역 신진 연구자들의 협업 결과물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

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삽질과 디깅' 공유회를 연다. 10일 본관 1층 로비.

이번 프로그램에는 바람의 디렉터 강민형을 비롯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3명의 연구자 백인우(청년 창업가), 손진경(일러스트레이터), 전우주(전시 기획자)가 참여한다.

각각의 주제는 '미술사와 연계한 국내외 인종차별 문제와 역사 속 순혈주의'(백인우), '네오-사메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민족적 정서인 토속

신앙, 의식문화'(손진경), '소멸 위기 에 놓인 지역 고유문화와 자신의 예술언어 전환 가능성'(전우주) 등이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공유회는 동시대의 지역성에 대한 생각을 관객들과 나누려는 시간"이라며 "지역 연구자들의 창의적 제안이 광주 예술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